

캘리그래피와 문장 | 큰 울림으로 남은 문장, 허수연 씁니다

**“시대에 따라 변하는 자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!”**

어느 드라마 한 장면에서 듣게 된 말입니다. 지금까지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.

변해야 하는 것,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경계가 흔들릴 때, 우리는 진리마저 불신하게 됩니다.

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. 우리 삶 안에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.